

농식품부, K-푸드 유럽 수출 확대 추진

EU 수출액 7억2838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가 프랑스 파
리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판촉과 유통망
개척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6~17일 프
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파
리 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2026)' 참가를 계기로 열처리 가
금육과 냉동식품의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김치·소스류 등 K-식
재료의 수출 판로 확대를 추진했
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유럽연합(EU) 권
역 K-푸드 수출액은 7억283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
가했다. 특히 2023년 김치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공육은 같은 기
간 수출액이 724만 달러로 492%
늘었다.

농식품부는 유럽 청년층의 K-
푸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파

리 국제 기숙사에서 치킨·핫도
그·떡볶이 등 K-스트리트 푸드
시식행사를 열었다. 현장 설문조
사 결과는 제품 개선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지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
의 40개 매장에서 열처리 가공육
과 냉동 간편식 판매 확대를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현지 바이어는 김치 협
상 타결 이후 한국산 열처리 가공
육 수요가 늘면서 입점 매장을 확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권혁운 주프랑스
대사와 만나 재외공관 등 외교 네
트워드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
도 논의했다. 현지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
관은 "열처리 가공육 등 전라품목
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고 K-식재
료를 외식·급식 현장까지 확산시
켜 유럽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키
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etimes.com



▲공립학교 조리사 교육 사진

SG한국삼공, 제품·영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SG한국삼공(대표이사 한
동우)은 지난 14일부터 16일
까지 충북 단양 소노벨 단양에서
'2026년 SG 제품·직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7
년 신제품 10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사 제품기
획(PM)팀과 제품등록팀, CRM팀,
영업기획팀, 영업관리팀 및 전국
지점 담당자들이 참석해 신제품
별 특성과 시장별 판매 전략을
논의했다.

공개된 신제품은 토양훈증저
리제 '메타쏘일 SL'을 비롯해
수도용 약제 6종, 살균제 '불리
텍스 EC', 전멸제초제 '자쿠사-

디 SL', 건조제 '바사삭 EC' 등
총 10종이다.
수도용 약제는 '벼가드 GR',
'도전왕에스 EC', '도랑치고
GR', '올사조 GR', '도원수 SC',
'올안케이티 DT'다. 회사는 토

양 관리부터 병해충·잡초 방제,
수확기 작물 관리까지 다양한
영농 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제품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 영

업과 본사 기획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SG한국삼공은 신제품의 시
장 안착을 위해 품질 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가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
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etimes.com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10
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농수산
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횡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

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

체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협,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어린이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진행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임직원의 재
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
련'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12일에는 중앙본
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
전교육을 실시했고, 13일에는
농협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
우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
했다. 이어 19일에는 자위소
방대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
로 화재 초기 대응 및 임무 수
행에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일에는 중앙본부 본
관·별관·신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약 3,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
했다. 임직원들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비상방송 이후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

된 대피경로로 신속하게 이동
했으며, 이를 통해 대피절차
숙지 여부와 재난대응체계 등
을 점검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국가적 종합훈련으로, 실
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농협은 이번 훈련에

서 참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훈
련을 진행했다.

박영훈 인사총무부장은 "평
소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협을 이용하는 고
객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농진청, 감귤 '레드향' 농가 열매 터짐 경감 기술 점검

국립원에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레드향' 농가 찾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
립원에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은 10월 16일 서귀포시 토평동
의 '레드향' 재배 농가를 찾아 열
매 터짐 발생 현황과 경감 기술
적용 상황을 살피고, 현장 중심
의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레드향'은 맛과 품질이 우수
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만감
류 품종이다.

여름철 고온과 급격한 수분
변화 등으로 열매가 갈라지는
열매 터짐 피해가 발생하고 있
어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
에 신경 써야 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 원장
은 감귤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레드향'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농
가 의견을 들었다.

서귀포시 토평동 농가는 시설
하우스 약 2,650㎡(800평)에 '레
드향'을 재배하고 있으며, 2025
년부터 감귤연구센터와 함께 생



▲레드향 나무위키

육 상황과 열매 터짐 발생률을
조사하고 있다.

2025년 최종 열매 터짐 비율
은 43.2%였으나, 올해는 10월 2
일 기준 12.8%로 조사됐다. 지
난해 같은 시점 35.2%와 비교하
면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농가에서는 열매 터짐 발
생을 줄이기 위해 피복재로 토
양을 덮고, 천창·측창 개방을 확
대하는 한편, 물 관리 개선 등 감

귤연구센터가 제시한 재배 환경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온기, 시설 안 온도와
토양 온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간 온습도 등 재배 환
경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을 적용하면, 열매 터짐 발
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올해 최종 열과율이 확
정되지 않아 향후 기상 조건과
환경 영향을 종합 분석해 기술
적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
획이다.

김대현 원장은 "최근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감귤 재배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 농가가 쉽게 실
현할 수 있는 안정 생산 기술 개
발이 요구된다."라며, "현장 실
증을 통해 열매 터짐 경감 기술
의 효과를 꼼꼼히 분석해 실효
성 있는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